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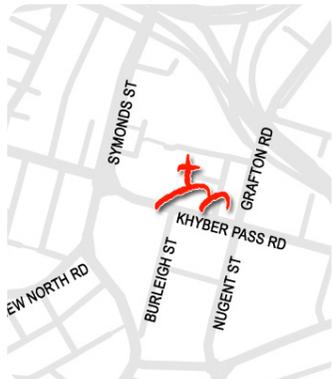
1. Lockdown이 2단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t. David 교회의 Interim Moderator (임시 노회장)로 선임된 Glynn Cardy 목사로부터 장로교단 총회에서 지 교회는 10명 이하도 모이지 말라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2. 신앙의 토대 성경공부를 내일 18일(월) 오후 7시부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성도들은 준비하기 바랍니다.
3.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장과 선교회 임원들은 서로 안부와 격려로 비대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5월 교회사역일지

5월 3일(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주일) 부모주일
5월 31일(주일) 권사 기도회, 유아 세례식

5/6월 기도순서

5월 24일 (주일) 김병진 목사
5월 27일 (수) 가정예배
5월 31일 (주일) 박덕철 장로
6월 3일 (수) 가정예배

5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0호

2020.05.17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온라인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 | | |
|---------|-------------------------|--------|
| 찬 양 | ----- | 주일 찬양단 |
| 예배로부름 | ----- 시편 105:1-3 ----- | 인도자 |
| ✧ 찬 송 | ----- 64장 ----- | 다함께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함께 |
| 찬 송 | ----- 298장 ----- | 다함께 |
| 대 표 기 도 | ----- | 김철재 집사 |
| 성 경 봉 독 | ----- 창세기 6:9-22 ----- | 인도자 |
| 설 교 | ----- 노아처럼 ----- | 이태한 목사 |
| 찬 송 | ----- 430장 ----- | 다함께 |
| 헌 금 기 도 | ----- | 인도자 |
| 교 회 소 식 | ----- | 인도자 |
| ✧ 응 답 송 | ----- 310장 (1,4절) ----- | 다같이 |
| ✧ 축 도 | -----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성 경 봉 독 예배소서 1:4
설 교 그리스도안에서 택하사
이성철 목사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님들께!

우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정말 잔인한 4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온 선교사로서 이동 제한과 교회가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 선교사의 존재감의 상실로 갈등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장례 2. 상조회 모임 3. 직장 4. 자기 생일 5. 손님 방문 시 6. 몸이 아플 때 7. 집안 청소와 빨래 8. 날씨가 덥거나 추워서 9. 시험 준비 10. 쇼핑 등등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교회 안 와도 되는 2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는데 (1.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본인이 죽었을 경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아내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던졌지만, 선교사 자신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곳 사람들에게 강조했지만 이곳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봉쇄 기간에도 확진자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사망자는 늘고 있고 거주지가 조밀한 열악한 흑인촌으로 변질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올 것이 왔습니다. 개념 부족, 주의 부족, 교육 부족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동네가 어떻게 견딜지? 선교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힘이나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태고 있습니다.

남아공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배고프고 화난 군중들에 의해 어떤 지역은 이미 데모, 약탈이 자행되고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를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노래를 기쁨과 춤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위기와 환난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 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기도와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동역자들과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없이 하루빨리 종식 되도록
- 계속되는 예배 중단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교회, 코로나19사태가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2. 통찰력이 있는 영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3. 모든 성도들이 주안에서 심적,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며 생업에도 속한 회복이 있도록.

나눔란

2020년 5월 10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1-8

본문을 통해 죄의 시작과 확산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봅니다.

1) 죄의 시작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기 때문입니다(6:1):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의 번성은 은혜이고 약속의 성취인데 사람은 번성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시 51:5)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은 죄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죄의 확산의 과정은 타락한 성문화로 이어집니다(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6:2)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과 같습니다(3:6). 이렇듯 죄는 항상 이어지고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아벨의 후손이 죄인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여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지만 육신적인 외면만 보는 가치관은 죄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신 것처럼(고후 6:14) 성경은 반복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기에 결혼을 위해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시지 않는 것과 남은 날이 백이십 년이 되는 것입니다(6: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육체만 남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롬 1:29). 하나님이 떠나신 인간은 소망이 없기에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한 것입니다(시 51:11). 또한 그들의 날이 백이십 년이 되리라는 경고를 받고도 노아 홍수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마 24:38). 이 유예기간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의 본분과 사명을 잊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2) 이렇게 타락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6:6):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항상 악하기만 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6:7) 이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노아가 누렸습니다(6:8)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살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기보단 내가 노아인 것을 기억하며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에베소서 2장 - 디모데후서 1장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